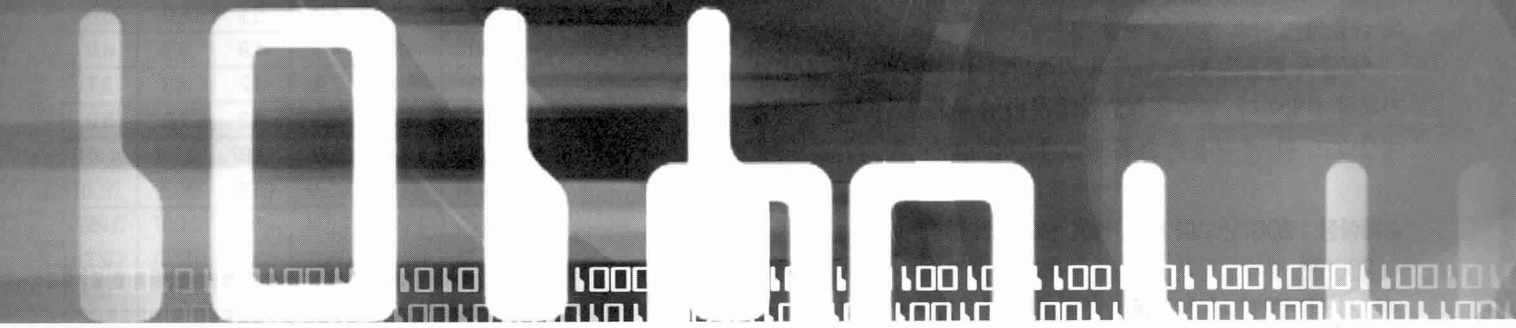


신년기획



# 5%의 경제성장과 IT · 기계산업군등의 수출 증가로 산업생산 호조 예상

2008년 경제 및 산업전망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경제 및 산업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 경제성장은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년보다 다소 높은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권 경기의 호조로 약 1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고, 연간 무역수지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140억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2008년 산업분야에서는 IT가 제조업 내수를 주도하며 23.3%의 매우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산업군과 기계산업군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증가율에 힘입어 12.6%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증가율도 내수의 견실한 증가,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해외 생산분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편집부

## 1. 거시경제 전망

### 세계경제 전망 : 선진권 성장세 둔화로 금년보다 소폭 낮은 성장 예상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부진 지속, 일본과 EU의 성장세 둔화, 중국의 긴축으로 2007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선진권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개도권은 호조를 지속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은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부진 심화 가능성, 국제금융불안 재연 가능성,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추세, 중국발 인플레이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기의 하향 위험(Downside Risk)은 높아질 전망이다.

## 국제유가 및 환율 : 지난해에 비해 변동성 축소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요인이나 기후 요인 등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연평균 70달러 대 후반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급등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하락세(원화 절상)가 진행될 전망이다. 연평균 900원대 중반 수준으로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고, 원/엔 환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경제성장 : 2007년보다 다소 높은 5% 내외 예상

2008년 경제성장은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년보다 다소 높은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해외불안 요인의 변동 폭이 주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도 수준의 미국 부진, 유가 및 환율의 완만한 변화추이 지속을 전제로 전망되며, 전년도 성장패턴의 기저효과(Base Effect)로 인해 상반기 성장률이 하반기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상하반기에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민간소비는 개인소득 증가세 확대 및 고용사정의 개선 등에 힘입어 2008년에 4%대 후반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소비와 수출 등 수요부문의 호조 속에 단위투자 규모가 큰 조선, 철강 등 대형장치산업의 호황에 따른 투자 확대로 2007년과 비슷한 8%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입 : 증가율은 낮아지나 호조 지속 전망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권 경기의 호조로 약 1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고, 수입은 내수 회복 및 원화 강세, 고유가 지속 등으로 수출증가율을 웃도는 약 13%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연간 무역수지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140억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무역흑자 감소와 내수 호조에 따른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도 경상수지는 소폭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2007년			2008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GDP	4.5	5.1	4.9	5.1	5.0	5.0
민간소비	4.1	4.9	4.5	4.9	4.9	4.9
건설투자	3.5	2.4	2.9	4.2	3.3	3.7
설비투자	11.4	5.4	8.3	8.2	7.8	8.0
통관기준 수출 (%)	1,777 (14.4)	1,914 (12.5)	3,691 (13.4)	1,987 (11.8)	2,114 (10.5)	4,101 (11.1)
통관기준 수입 (%)	1,701 (13.9)	1,814 (13.3)	3,514 (13.6)	1,922 (13.0)	2,037 (12.3)	3,959 (12.7)
무역수지	76	101	177	65	77	142
경상수지	-16	52	36	-10	-7	-17
소비자 물가	2.3	2.5	2.4	2.8	3.0	2.9

## 2. 산업 전망

### 산업전망 개요

2008년 제조업 생산은 IT경기 회복세, 기계산업군의 견실한 증가세, 철강의 신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 등에 힘입어 상·하반기 고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내수는 민간소비지출 확대 및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제조업 가동률, 설비투자 조정압력의 상승세 추세가 내수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제조업이 제조업 내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반도체의 경우 DTV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확대, 윈도 비스타 PC 보급 확대 및 신규 IT인프라(WiBro, IPTV 등)투자 등에 힘입어 수요 증가 등으로 23.3%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수출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개도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6%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산업군과 기계산업군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입증가율도 내수의 견실한 증가,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해외 생산분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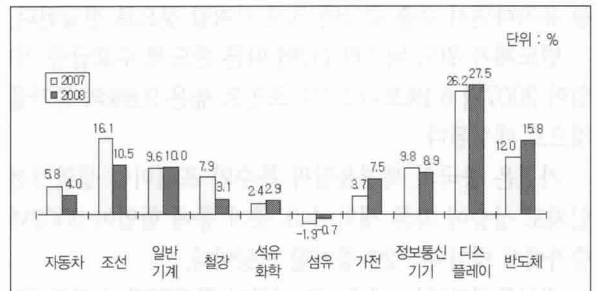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업종의 2008년 생산증가율 전망(실질가격 기준)

**제조업 생산은 IT, 기계류 주도로 상·하반기 고른 증가세 예상**

2008년도 제조업 생산은 IT경기 회복세, 기계산업군의 견실한 증가세에 힘입어 상·하반기 고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IT제조업의 경우 윈도 비스타 PC용 반도체 수요 증가, 메모리업계의 나노공정 확대, 통신기기에 대한 신제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상·하반기 고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중국 특수에 따른 대형패널의 수출 급증과 수출가격의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등에 힘입어 생산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30mm 웨이퍼의 60나노 공정 라인 전환 완료로 공급량이 대폭 증가되어 15.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기준으로는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10.1%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는 중국 등 휴대폰의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생산은 2007년 9.8%보다 0.9% 포인트 낮은 8.9%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은 북경올림픽 특수에 따른 영상기기의 수요 증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보다 3.8% 포인트 높은 7.5%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은 조선과 일반기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10%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의 경우 4%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선종의 고부가가치화 및 선가 상승 등으로 10.5%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계는 국내 설비투자 호조와 수출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0%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여타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은 수준에서나마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전략 차종 투입과 품질이미지 향상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12.6%의 높은 증가율 예상**

수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다소 둔화되나, 원화 가치의 안정과 대개도국 수출호조 등으로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008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아지지만, 12.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 부진을 보였던 IT산업군은 2008년에는 2007년보다 4.8%포인트 높은 13.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북경올림픽 등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40% 이상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부족으로 노트북, 모니터용 LCD, TV용 패널 가격이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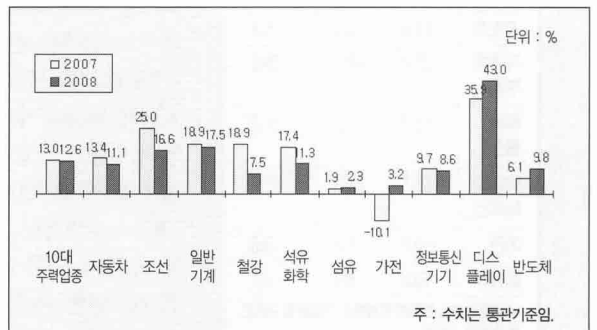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업종의 2008년 수출증가율 전망(달러표시 가격 기준)

# 신년기획

를 유지하면서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가 윈도 비스타 PC에 따른 반도체 수요급증 기대 등에 힘입어 2007년 6.1%보다 3.7% 포인트 높은 9.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은 중국의 북경올림픽 특수와 프리미엄 생활가전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해외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 마이너스 증가에서 벗어나 3.2% 증가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는 세계 3G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휴대폰, 통신 장비 및 이동통신 부품의 수출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모니터 및 프린트의 수출 수요에 힘입어 전년대비 8.6% 증가할 전망이다.

2008년에는 조선, 일반기계, 자동차 등 기계산업군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확대 등에 힘입어 1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중·대형 차종 위주의 수출확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11.1%의 견실한 증가가 예상된다.

조선은 고부가가치 선종의 건조 증가 및 선가 상승 등에 힘입어 16.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계는 1, 2위 수출 시장인 중국, 미국 등의 수입 감소 요인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이지만, 중동 및 신흥시장으로의 높은 수출증가 지속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17.5%의 높은 증가세 지속이 전망된다.

표 2. 업종별 2008 산업 전망 기상도

	생산	내수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주 : 1) 전년도대비 증감률(실질가격 기준), -5% 이하 ☁, -5~0% ☁, 0~5% ☁, 5~10% ☁, 10~15% ☁, 15% 이상 ☁☁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 짧막 뉴스

### 2008년 IT수출, 반도체·무선통신·디스플레이 '맑음'

올해 반도체 산업이 두 자리 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무선통신·디스플레이 부문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과 컴퓨터는 생산설비 해외이전 등으로 부진이 점쳐졌다.

#### 품목별 2008년 수출전망

(업종별 단체 전망치, 전년대비, %)

품목	증가율		
	2006	2007전망	2008전망
반도체	24.6	6.9	11.7
자동차	11.6	13.0	5.9
자동차 부품	21.0	20.1	18.8
무선 통신	-1.7	11.9	11.2
액정디바이스	160.7	37.8	17.7
가전	-0.7	-7.8	-8.6
컴퓨터	-10.9	8.4	2.7

\*동 전망치는 업종별 단체에서 11월말을 기준으로 전망한 수치임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수출산업 경기동향 점검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올해 하반기중 D램가격 회복 및 낸드플래시 시장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지난해(6.9% 예상)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1.7%로 예측됐다. 무선통신품목과 디스플레이는 올해 11.2%와 17.7%의 수출증가율을 전망했다. 무선통신품목은 3세대 단말기 보급 확대에 따른 선진시장 대체수요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저가폰 시장 성장, 디스플레이는 디지털TV수요 확대 및 IT기기 시장 확대가 수출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됐다. 가전과 컴퓨터 산업은 국내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으로 수출증가율이 8.6% 감소(가전), 2.7% 증가(컴퓨터)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3천670억 달러, 3천520억 달러로 전체 무역액은 7천190억 달러를 기록, 무역 100억 달러 달성 33년 만에 7천억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부진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둔화되고, 신흥 공업국의 수요 증가와 수급 불안으로 인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원화 강세의 지속으로 올해 무역환경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불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바라본 2008년 경제전망 이모저모

2008년 국내 경기전망에 대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동일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미국을 포함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및 원화 절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은 대부분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 신정부 출범 및 북핵 리스크 감소 등이 국내 경제성장률 상승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경/제/전/망

#### ○ 한국은행-2008년 경제 성장률 4.7% 전망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2008년 경제전망'에서 2008년 GDP 성장률이 상반기 4.9%에서 하반기 4.4%로 둔화돼 연간 4.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전망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는 고유가 충격이 선진국의 경기회조와 신흥 시장국의 고성장 등에 의해 흡수됐으나 앞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불안심리 확산 등 유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를 제외하고 설비투자, 수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올해 4.4%에서 내년 4.3%로 낮게 전망했다. 설비투자(7.6% → 6.4%) 수출(11.3% → 10.3%) 역시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3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에 이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올해(315억 달러 예상)보다 줄어든 260억 달러를 내다봤다.

#### ○ 삼성경제연구소-2008년 경제 성장률 5% 전망

삼성경제연구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심화,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1% 미만으로 둔화한다면 200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4.8%)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정구현 소장과 홍순영 거시경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경제전망 관련 오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2008년 민간소비는 지난해의 증가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돼 상반기 4.7%, 하반기 4.3% 증가할 것으로 봤으며 설비투자는 상승기조는 유지되지만 전년의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반기 6.3%, 하반기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세계경기의 감속성장과 달러약세,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각각 11.2%, 10.9%로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3.1%, 하반기 2.9%로, 연간 3%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창출은 31만 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23억 달러, 하반기 6억 달러 등 모두 29억 달러 적자를 내고,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915원, 하반기 905원으로 하반기 들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 ○ 한국경제연구원-2008년 경제성장률 5.1%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21일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8년도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을 지난해 추정치(4.7%)보다 높은 5.1%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을 포함,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및 원화절상 등 악재에도, 수출다변화와 제품경쟁력 제고 등으로 크게 둔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부문은 신정부출범, 북핵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의해 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33억 달러)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2008년도 거시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에서 이어 "차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걸림돌로 작용해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